

부고

헤디 마리 HEDY MARIE 수녀

ND 4529

(이전 메리 클라우디아 Mary Claudia 수녀)

헤드윅 메이 올레스키 Hedwig Mae OLESKY

미국,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

출 생:	1932년 7월 23일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서 원:	1953년 / 2006년	오하이오 샤든, 클리블랜드
사 망:	2020년 12월 27일	오하이오 샤든, 건강 관리 센터
매 장:	2020년 12월 31일	오하이오 샤든, 부활 묘지

찰스 올레스키와 넬리 도미니코브스키는 서로 만나기 전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서로의 배우자들을 잃은 상태였다. 일단 만나 결혼을 하자 다섯 명의 자녀들이 혼합된 가정을 이루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덟 명의 자녀들이 더 태어났다. 헤디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였다. 1943년, 가족들은 오하이오 영스타운으로 이주해 왔으며 5학년이었던 헤디는 가톨릭 학교에 다니면서 노틀담 수녀들을 알게 되었다. 성장기를 온전히 즐기며 형제들과 많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았다. 그리고 일 평생 자신의 폴란드 유산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겼다! 성 요셉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아스피랑으로 받아들여 졌으며 클리블랜드의 노틀담 아카데미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시작했다. 헤디는 1951년 2월 2일에 입회하여 청원자가 되었다. 착복하면서 메리 클라우디아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1953년에 서원한 이후, 수녀의 초등학교 교사 경력의 시작되었다. 1966년, 수녀는 토요일과 여름 학기에 수업을 들으며 성 요한 대학에서 교육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탁월하고 창의적인 교사였던 메리 클라우디아 수녀는 새내기 교사들을 최선으로 인도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의 멘토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곤 했다. 수녀는 꼬마들을 아주 좋아했고 그들에게 성사를 준비시키는 일을 특권으로 여겼다. 수녀에게는 자연스러운 매력이 있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1982년 6월, 건강 문제, 어머니와 형제들을 돌봐주어야 하는 필요성으로 봉쇄 관면을 청했다. 가족들에게 헌신하면서도 초등학교 교사일을 계속했다. 1991년에는 종교 교육 담당자 역할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들었다. 헤디는 학업을 재개하여 루이지애나 뉴 올리언스의 로올라 대학교에서 사목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시간 동안 샤든 건강 관리 센터를 방문하며 봉사하기 시작했다. 친분을 새롭게 하면서 준회원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01년 준회원 계약을 맺었다. 수녀들과 수녀회에 대한 사랑은 헤디를 노틀담 수녀회에 재입회하도록 촉구했다. 헤디는 여러모로 사명과 공동체 정신을 살아가고 있었고 “사실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헤디 마리 수녀는 2006년 7월 29일에 서원을 발했다. 사목 봉사자로서 특히 건강 관리 센터 수녀들에게 연민이 넘치고 도움이 되는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데 투신했다. 활동을 하며 도움이 되어 주었기에 수녀의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재능은 커다란 자산이었다. 수녀는 벅아이 사탕과 맛있는 피첼라 쿠키를 굽는 사람으로 잘 알려졌다. 수녀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온전한 복리에 헌신했다. 그 헌존과 친절과 적극적 참여는 선물이었다. 2018년, 점차 빠르게 진행되던 치매 증세로 인해 보다 전문적 간호 혜택을 얻기 위해 노틀담 생활 지원 시설로 이전해왔다가 지난 8월에는 건강 관리 센터로 돌아갔다. 예수님과 어린 아이들과 가족과 수녀들을 사랑했던 헤디 마리 수녀가 영원토록 사랑의 하느님의 품에 머물기를.